

한식

성묘를 하고 산소의 풀을 베거나
잔디를 새로 입히기도 하는 날





한식에 대하여 알아보시다.



한식은 언제일까요?

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, 양력으로는 4월 5일 무렵이며 청명절 다음 날 또는 같은 날입니다.

한식은 어떤 날인지 알아보시다.

한식은 설날, 단오,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입니다. 계절적으로는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철로 밭에 씨앗을 뿌리고, 산소에 가서 무덤을 보수하고 성묘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.

한식은 일정 기간 불의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는 풍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그래서 금연일, 숙식, 냉절이라고도 합니다.



한식의 유래를 알아보시다.

- 한식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?
 - 개자추 모자상



한식은 중국 춘추시대의 인물인 개자추 설화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. 아래의 개자추 설화를 살펴봅시다.

- 개자추 설화 보기



한식날의 풍습에 대해 알아보시다.

● 한식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?



■ 산소 돌보기

한식에 하는 산소 손질의 일종으로 무덤이 헐었거나 떼(잔디)가 부족할 때 떼를 다시 입히는 일을 말합니다.



■ 성묘

한식날 조정에서는 종묘와 각 능원에 제향을 지냈으며, 민간에서는 성묘하였습니다.



■ 산신제

마을의 수호신으로 믿는 산신에게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로서 동제, 산제, 산치성, 산제사라고도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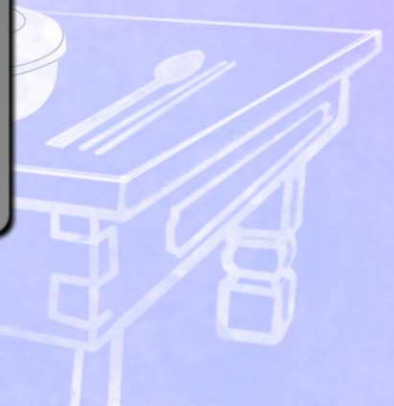
■ 파종하기

농가에서는 한식을 기하여 밭에 파종하고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하였습니다.

- 한식에 먹는 음식을 접시에 담아 볼까요?



- 천년의 밥상 동영상 감상해 볼까요?



한식의 음식과 민속놀이를 알아보시다.

- 송구리단자는 어떻게 만들까요?



송구리단자 만들기

- 한식에는 어떤 놀이를 즐겼을까요?

한식에는 민속놀이를 즐기기도는 성묘를 하며 차분하게 지냈다고 합니다. 다만 '투란'이라는 놀이가 한식날에 서울에서 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옛시조가 남아 있습니다. 투란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, 달걀을 깨뜨리거나 서로 던지면서 놀이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



